



폭염에 가축도 ‘허덕’… 폐사 속출

돼지 371마리 폐사 피해… 축산농가 ‘비상’
제주시, 면역증강제 지원 등 긴급대책 마련

불볕더위를 이기지 못해 폐사하는 가축들이 잇따르면서 제주지역 축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8일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날까지 폭염으로 접수된축산 피해는 돼지 808마리이며, 이 가운데 폐사가 확인된 경우는 39개 농가 371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외에 가금류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염에는 가축들의 사료 섭취량이

현저히 감소해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속될 경우에는 질병 발생률도 높아져 폐사 위험이 커지게 된다. 돼지의 연간 폐사율은 20% 정도인데 이 중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번 폭염으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축산농가가 밀집된 한림읍으로, 지난 5일 두 농가에서 각각 20마리가 폐사하는 등 23개 농가에서 총 230마리가 폐사했다.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8)씨는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가 무더위로 인해 시름시름 앓다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도 모자라 잡도 거의 못자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먼저 제주시는 더위에 취약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제와 면역 증강제 1300

kg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월부터 공수의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편성해 질병 관리요령 지도·홍보와 질병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사육 밀도 유지, 차광시설 설치, 환기 및 안개분무 시설을 통해 농가 스스로 내부온도를 낮춰 스트레스를 저하시키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특히 피해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축산재해 대비 가족보험’ 가입에도 적극 동참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상대 차 수십차례 왕 왕… 30대 법정구속

주차시비끝 자기차로
상대방 차량 들이받아
법원 “실형선고 불가피”

주차 문제로 화가 나 상대방 차량을 20차례 이상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A(54·여)씨와 이중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A씨가 사과 하고 차를 빼려던 중 김씨는 갑자기 자신의 차량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24차례에 걸쳐 A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왼쪽 팔뚝 등을

다쳐 약 12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름의 여지가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지병 때문에 약을 복용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 안에 피해자가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방카메라와 후사경 등이 피고인 차량에 설치돼 이를 모를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 문제만 내세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40대 女 해상서 숨진채 발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해상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에서 택시기사 정모(49)씨가 물에 떠 있는 김모(42)씨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택시기사인 정씨는 김씨를 포구에 내려주고 대기하고 있다 김씨가 돌아오지 않자 주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물에 빠져 있는 김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여성폭력 예방 '보라데이' 연대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는 8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일대에서 '신고해 보라! 도움을 요청해 보라! 물어 보라!'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피서지 여성폭력 예방 보라데이 연대캠페인'을 진행했다. 매일 8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는 의미를 담은 '보라데이'는 2014년 8월 8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독자제보 750-2232

불법체류 중국인 남녀 30명 검거

경찰, 집단거주 주택 급습 현장서 체포
단속인력 갑절 증원… 적발 크게 늘 듯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불법체류자 집단 거주지를 급습해 30명을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5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A(29)씨 등 30명(남성 21명·여성 9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

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였다.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했고, 주로 건설 현장이나 농장에서 돈을 벌며 해당 주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한 알선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검거는 제주경찰이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지안활동'을 전개한 이후 첫 사례다. 경찰은 이 기간 도민 불안 야기 장소·요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 하고 있으며 “애월읍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해 불안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제주경찰은 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단속팀 규모를 기존 27명에서 59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도민불안을 야기하는 외국인 집단거주지와 범죄취약지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 범죄를 일으켜 검거된 외국인은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력사건에 해당하는 살인은 2016년 2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강도는 4명에서 9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2016년 465명, 2017년 436명, 2018년 42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동물테마파크와 협의 없다” 조천읍 람사르습지위 성명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람사르습지위)는 7일 성명을 내고 “마을을 분열시키고 반생태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에 분노해 우리 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천읍과 람사르습지위는 미래 100년을 계획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할 자연을 보전하며 공익적 사업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천읍 선출2리에 들어서려 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동물권을 훼손하는 반 생태적 개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는 조천읍 주민들과

위원회의 그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 시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승인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8일 ▷환경에 영향 끼치는 약품 미사용 ▷오수 방류 없는 100% 중수 재활용 ▷10여년 전 훼손된 제주 중산간 자연경관 복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법률 준용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 및 동물권’ 관련 사업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동물테마파크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마을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환경 및 동물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화원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장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꽃보라 꽃보라 T.746-0014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

• 예초기 / Brush Cutter • 잔디깎이 / Lawn Mower • 체인톱 / Chain Saw • 전정기 / Hedge Trimer • 송풍기 (낙엽청소) / Blower

잔디깎이 벌초기계 체인톱



잔디깎이 : 동력(엔진·전기), 수동, 탑승식
에 초 기 : 견착식, 배부식(2단 분리형 · 일체형)
체인톱, 수벽전정기, 분무기, 양수기, 소형엔진, 파쇄기

Green Clean!

정원산림관리 장비, 농업산업기계, 소형엔진 판매 · 정비
해록기계 ☎722-3414~5 757-0165

구. 병무청 KAL 호텔 삼성혈 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35(일도2동)
기산아파트 해록기계 사리봉
삼성혈 동쪽 다리옆 (민속자연사박물관 앞)